

< 명후이 팩스 > 증간

2020년 9월 4일 제 2기

'돌파프로그램'파일 내려받기
컴퓨터판 : <https://git.io/fgp>
안드로이드판 : <http://git.io/fgma>



달 빛

익사귀 하나를 쪽배로
바람따라 휘날리며
얼마를 배회하고
얼마를 방향 잃었더니
맑고 밝은 달빛이여
나의 꿈인 천당으로 데려가다오

천국의 친인들은
이별의 아픔을 하소연하지만
기나긴 세월속에서
내가 그들을 잊었기에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나의 기척은 없었네

평명은 오래된 기억을 흔들고
은색을 띤 달빛은
최초의 소망을 새겼네
높은산 먼길 도로는
길고도 험한데
집으로 향하는 방향
어떻게 찾을소나
친인들의 부탁은
귓전에서 맴돌고
사람을 구하는 배는
이미 출항하거니
'진, 선, 인'의 빛
나를 이끌어 귀향한다네

순천 지금 사람은 옛적의 달을 보지 못 했으나 지금 저달은 옛날 사람에게도 비쳤을 것이다

혜오 하늘에만 있는 이런 곡을 평생에 몇번이나 들어볼 수 있을까?

만원 달은 둥글고 사람은 더 원만하다 나는 깨어나고, 살아났다

단지 사람들이 오래 살도록 천리밖에서도 함께 달을 감상하기를 원한다

경자년은 재난이 많아 상상을 초월하는데 어떻게 겁난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당대 유명한 재상 장구령(張九齡)의 <망월회원 [望月懷遠]> 중의 “바다위로 밝은 달이 솟아나니 [海上生明月], 하늘끝에서도 이 순간을 함께하다 [天涯共此時]”라는 시구는 천고로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밝은 달 아래서 사람들은 서로 그리면서 축복하고, 하늘끝에서도 서로 바라보는 성당(盛唐) 시기 사람들의 타인을 관심하고, 또한 타인의 관심을 받으며, 타인을 축복하고, 또한 타인의 축복을 받는 조화로운 현상이 반영되었고 성당시기 현명한 재상의 사리에 밝고 박대한 흥금도 체현됐다.

장구령은 당나라의 개국 재상이었다. 그는 인정(仁政)을 베풀고 늘 백성들을 마음에 품었다. 당현종에게 올린 시 중에는 “매노창생념 [每勞蒼生念], 불이황옥존 [不以黃屋尊]”라는 시구가 있다. 개원 4년,

장구령은 당현종에게 상서를 올려 교사제를 진행하여 하늘을 공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서에는 “덕망을 잃고, 잘못된 정치를 하게 되면, 하늘은 수(水) 재와 가뭄(旱) 등 재난으로 경고를 하나이다. 천도(天道)는 지극히 높으나 그러나 응보는 도리어 아주 가깝사옵니다. 과거에 동해에서 효부를 잘못 살해한 죄로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했사옵니다.”라고 적었다.

고인은 “물아상지 [物我相知], 천인합일 [天人合一]”을 말한다. 추석에 달에 제사지내는 것도 천지에대한 공양을 표달하는 것이며 만약 천리를 어기면 천벌을 초래할 수 있다. 그때문에 고대에서는 재난이 나타나기만하면 군자는 죄기조(罪己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조서)를 발표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현상이 출현했고, 백성들도 성심껏 선을 향해야만이 신(神) 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경자년은 재난이 많아 상상을 초월하는데 추동에는 변고가 있을까?

2019년 8월, 인도의 남자아이 아난더(阿南德)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세계에 거대한 위험이 구성된다”고 정확한 예언을 내 놓았다. 금년 4월 아난더는 또다시 2020년 12월 20일에 다른 한차례 재난이 곧 발생하게 되는데 무한 폐렴보다 더욱 엄중하며 이 한차례 재난의 충격은 2021년 3월까지 지속된다고 예언 했다. 그는 또 “우리는 가능하게 이 병독의 백신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또 더욱 많은 병독들이 나타날 것이고, 심지어 슈퍼세균까지 올 것이다.”고 예언 했다. 사람들은 누가 병독을 만들었는지를 알수 없지만 그러나 가능하게 하늘에서 인류의 죄업을 소감시키려는 것일 수 있다. 그는 “우리는 일단 인류의 일 (뒷면에 계속)

(1면의 계속) 면에서 역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상관할 것 없이 이것은 천상의 변화로 인한 필연적인 출현이자 인류의 공업(共業)이므로 전인류가 내심으로부터 각성해야 만이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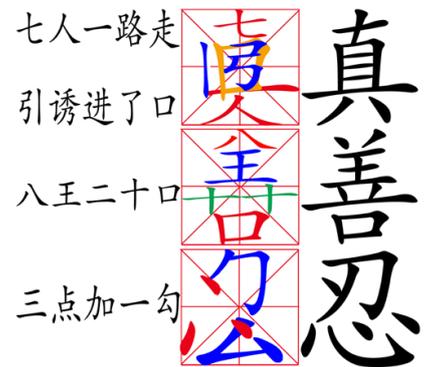
사실 일찍 600여년 전 명나라의 재상 유백온(劉伯溫)의 ‘산서 태백산비문’은 경자년의 이 한차례 전염병의 시간과 범위를 정확하게 예언했다. “역병이 언제 닥칠지를 묻는다면, 오직 겨울부터 열 달 동안을 보라. [若問瘟疫何時現, 但看九冬十月間]” 세 번째 근심은 호광에서 큰 난을 만나는 것이요, 네 번째 근심은 각 성에서 봉화가 오르는 것이다 [三愁湖廣遭大難, 四愁各省起狼煙].” 전염병이 먼저 ‘호광(湖廣: 호북성과 호남성)’에서 발생해 이후 전국 각

성으로 퍼지며, 전염병 재난 중에 ‘천하에 난이 잇따르고’, 전염병 대응을 위해 곳곳의 분위기가 ‘봉화’가 도처에서 피어오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의 <금령탑 비문(金陵塔碑文)>은 또 정확하게 홍수재난을 예언했다. “번화시가 왕양으로 변하고 [繁華市, 變汪洋], 높은 아파트는 진흙 언덕으로 변한다 [高樓閣, 變坭崗].”

인류는 거대한 천상의 변화를 개변시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뜻에 순종할 수는 있기에 천상의 변화속에서 개인의 운명을 위해 선택할 수 있다.

유백온 비문은 수수께끼처럼 파자(破字)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재난을 면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세 글자를 알려 주었다. “일곱 사람이 한 길을 가는데(七人一路走), 유혹하여 입으로 들어

가고(引誘進了口), 점 세 개에 갈고리 하나를 보태니(三點加一勾), 여덟 왕에 입이 스무 개라(八王二十口), 사람마다 기뻐서 웃고(人人喜笑), 사람마다 평안하다(個個平安).” 이 세 글자는 바로 진(眞), 선(善), 인(忍)이다.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집집마다 한데 모이기를 바라고 사람마다 평안을 바라는데 당신이 ‘진(眞), 선(善), 인(忍)’을 기억하여 겁난을 평안하게 넘기기를 기원한다. **글/천찬**



지금 사람은 옛적의 달을 보지 못했으나 지금 저달은 옛날 사람에게도 비쳤을 것이다



소식(蘇軾)



범중엄(范仲淹)

천인합일의 조합은, 사물과 나 둘다 잊게한다

“밝은 달은 언제부터 저 하늘에 있었는가, 술잔을 잡고 푸른

하늘에 묻노라 [明月几时有, 把酒问青天]. 하늘의 궁궐에서는 오늘이 어느 해인지 모르겠네 [不知天上宮闕, 今夕是何年].” “지

금 사람은 옛적의 달을 보지 못했으나, 지금 저달은 옛날 사람에게도 비쳤을 것이다 [今人不见古时月, 今月曾经照古人]. 옛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흐르는 물처럼, 모두가 이와 같은 심정으로 밝은 달을 바라보았으리라 [古人今人若流水, 共看明月皆如此]. “밝은 달은 늘 있거늘, 사람은 이세상에 잠깐 있다 가네 [明月长在, 人生如寄].” “소나무 사이로 밝은 달 뜨고, 맑은 샘물은 바위 타고 흐른다 [明月松间照, 清泉石上流].” “하늘로 날아올라 밝은 달을 꺼안고 싶네 [欲上青天揽明月].”

천고로 전해내려온 달을 읊은 절구들은 경지가 광범위하거나 기세가 드높고; 생동하면서 활달하거나 평온하 (뒷면에 계속)

(2면의 계속) 면서 담박한 것이 한쪽의 참신하고 깨끗한 수묵화마냥 청아하고 아름답다. 시중에 그림이 있고, 그림속에서 시가 있는 천인합일의 조합은, 사물과 나 둘다 잊게한다.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온갖 세상사를 겪으면서 옛날이든 지금이든 영원한 수수께끼를 탐색하고 있다: 생명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생명은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인류는 일월(日月)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생명사이에 기맥이 서로 통한다. 사물과 나를 모두 잊고, 천인합일을 이루는 것은 중국 고대에서 인식하는 사람과 자연, 그리고 우주와 생명의 기점을 가리킨다. 추석명절의 기원은 즉 추분시기에 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부터 시작됐다. 천(天)자는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천하를 다스리려 하고, 백성은 제사를 지내면서 신에게 감은하고 복을 빈다. 신전문화는 중국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화적인 부분으로서 백성들은 대대로 신전문화 이야기를 서로 전하여 후대들에게 자신은 신을 믿고 하늘을 공경하는 영황자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했다.

중국 당송시기의 수많은 대학자들은 불도(佛道)를 믿었다. 이백은 적선(仙, 인간 세계에 쫓겨 내려온 선인)이라 불리우고, 왕유는 호 마힐(摩詰)이고, 백거이(白居易)는 호 향산거사이고, 소식(苏轼)과 범중엄(范仲淹)은 신(信)불하고, 장원 재상인 문천상은 원조시기 감옥에서 “대광명 정법”을 수련하였기에 원세조가 항복시켜도 탄연하게 흔들리지 않고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았다. 그들은 생명, 그리고 영원에 대한 깨달음이 초연의 경계에 이르렀기에 천고의 뛰어난

시문을 남길 수 있었다. 지금 사람은 달을 감상하며 아직도 이와 같은 천고의 수수께끼에 대해 질문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기에 앞서서 근심하다

많은 사람들 머리속에는 문인묵객이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상이라고 생각한다. 실은 고대 사람들은 배운뒤 남은 힘으로 벼슬을 하고, 과거(科擧) 시험에서 합격하면 관리로 일을 한다. 대학자들은 시를 읊어 감정을 토로하고, 글을 써 시대의 병폐를 지적하여 고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사직(社稷)에 관해서도 담당한다.

북송시기 재상인 범중엄은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기에 앞서서 근심하고, 천하 사람들이 즐긴 후에야 비로서 즐긴다 [先天下之忧而忧, 后天下之乐而乐].” 라는 천고의 명작으로 사대부의 품성을 선보였다. 그는 군주에게 직언하여 탐관들을 엄벌하여야 한다고 충고한 터로 여러차례나 좌천하였지만 한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하였다. 말년에 국경의 요새를 지키면서 직무에 충실하였고, 죽음에 닥쳐서도 결코 굽히지 않고 초심을 지켰다.

범중엄은 불(佛)가 사상의 영향을 받아 불법을 신봉 하였다. 그의 세상을 구제하는 신념과 관리로서 청정하고, 백성들을 아끼는 사상의 근원은 유(儒)가 사상인 “인자는 타인을 사랑하고, 천하도 겸하여 구제한다 [仁者爱人、兼济天下]”와 불가의 “불(佛)성은 선을 향하고, 중생을 자비하게 대한다 [佛性向善、慈悲众生]”의 사상경계로 시작됐다. 이는 바로 고대 천인합일 사상의 구체적인 체현이었다. “민간에서 멀리 처해 있으면, 그의 군주를 근심하게 된다 [处江湖之远则忧其君].” 범중엄은 해임되어 귀가하였을때 국사가 깊이 우려돼 조정에 <상집정서>를 상

소하여 “군수(郡守)를 잘 선택할 것; 지방장관을 받들 것; 요행수를 억제할 것; 분에 넘치는 행위를 금지할 것; 과거제도를 엄격하게 할 것; 교육을 중시할 것; 장군감을 받들 것; 신하의 가치를 유지할 것; 왜(後)나라 신하를 배척할 것” 등 조치에 관해서 건의하였다.

“묘당의 높이에 있으면, 그의 백성들을 근심하게 된다. [居庙堂之高则忧其民]” 그가 우사감(諫)을 임할때 가뭄과 메뚜기 피해가 경동과 회하 유역을 뒤덮고 있었다. 범중엄은 하루 빨리 재해 지역을 순시하여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정에 건의했지만 송인종은 중시하지 않았다. 그는 송인종에게 “만약 궁정에 한나절 먹을 것을 중단한다면 폐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송인종은 깜짝 놀라며 깨달았다. 그리고는 바로 범중엄을 재난 지역으로 보내 백성들을 보살피도록 했다. 범중엄은 가는 곳마다 관부의 창고를 열어 재난을 당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한편 조정에 요청하여 세금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특별히 재앙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먹는 야채를 경성으로 직접 들고 와 인종과 후원의 궁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사치를 면하도록 했다.

용무(勇武)를 담당하여 세상과 백성을 구제하다

소식(苏轼)은 문학가이자 용무를 담당하고, 세상과 백성을 구제하는 “부모관”이기도 했다. 소식은 서주에서 지방관리로 임하고 있을때 홍수가 범람하여 부유한 백성들은 너도나도 서주를 피해 도망쳤다. 소식은 말했다. “부민이 출(出)성하면, 서주백성들은 모두 흔들릴 것이니, 내가 여기에 있는한 홍수는 결코 성벽을 무너뜨려 (뒷면에 계속)

(3면의 계속) 서는 안된다.” 태수가 끄떡도하지 않으니 부민들은 또다시 성으로 돌아왔다. 소식은 과감하게 군대를 찾자 사병장관은 말했다. “홍수가 왔지만 태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고는 병사를 이끌고 제방을 쌓기 시작했다.

소식은 성벽위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안에서 살면서 밤낮을 지휘하였다. 가끔 사무를

처리하느라 성벽에서 내려와 자신의 집문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다. 군민과 함께 힘을 합친 결과 제방을 보수하여 서주성을 구했다.

소식이 항주로 파견되었을 때 항주에서 가뭄, 굶주림과 역병이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나 그의 조치하에 많이 억제되었다. 항주에서는 서호에 제방을 쌓아 아직도 “소씨의 제방(苏堤)”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소식이 보기에 “나라가 생존하고 멸망하는 이유는, 도덕의 높고 낮음에 달려있지, 나라의 강하고 약한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조대와 정권이 바뀔 때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는 풍속의 경박함과 둔후(敦厚)에 달려있지, 나라의 부유함과 가난함에 달려있지 않다.” 오늘날에 보기에 소식의 이러한 견해는 예리하다.

글 / 사오샤오

하늘에만 있는 이런 곡은 평생에 몇번이나 들어볼 수 있을까?

당조시기 개원년간의 추석날밤, 당현종은 꿈에서 월(月)궁을 유람했다. 백여명의 선녀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는데, 선악(乐)의 흐름은 청아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었고, 선녀들의 자태는 아름다우면서도 부드러웠다. 현종은 이것이 무슨 곡인지를 묻자 선녀는 <예상우의곡>이라고 답했다. 깨어난 후 현종은 꿈속의 기억대로 이 곡을 기록하였다. 그리고는 직접 이(梨)원의 악공에게 작곡하도록 가르치고는 그것의 이름을 <예상우의곡>이라고 명했다.

선궁에서 가지고 온 음악과 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가히 상상할 수 있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도 들은 후 잊지못해 그의 시 중에서 여러차례나 칭송하고 회상하던 곡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후에 악보는 실전되었고 우리는 현재 더는 감상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천동(陈东)이 작곡한 <당현종의 꿈에서 월궁을 유람하다>는 당신을 이끌고 또다시 선(仙)경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천동(陈东)은 할리우드 미디어 음악에서 큰상을 받다.

■ 영(靈) 감은 수련에서 온다

천동(陈东)은 북경에서 온 젊은 음악가이다. 어릴적부터 그의 어머니는 파룬궁을 수련했기에 영국으로 온다음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면서 그 자신도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수련전, 천동은 쉽게 복잡한 정서속에 빠져들어 헤어나오질 못했다. 유행하는 음악을 즐겨

들었으며 자신과 관련이 있든 없든 빠져 들어갔다. 수련후 도덕의 승화됨에 따라 그가 제작한 음악도 점점 더 맑고 깨끗해 졌다.

음악가로서 그 누구도 창작에서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히 하나의 넘기 어려운 곤경에 처한다. 천동도 마찬가지로 창작과정에서 수차례의 “영감고갈”을 지나왔다. 하지만 그가 두 다리를 틀어올리고 두 손을 결인한 후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비우기만 하면 점차 평온해지는 동시에 영감도 서서히 그의 머리속에 떠오르곤 했다.

그는 수련중에서 모든 훌륭한 작품에서 선율의 결구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나 전해지는 소리는 오히려 특별히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작품들의 선율은 중화문화의 “음양평형, 상생상극”과 같은 일종 자연스러우면

서도 또 기묘한 대응이 있었고 바로 일종의 천연적인 호응(呼应)과 같은데 당신이 그것에 부합하기만하면 이 음악은 형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매력을 지니게 된다. “이런 규율에 대해 장악하게 되면 마치 더는 영감의 한계란 존재하지 않는것 같았습니다.” 천동은 말했다. “그 ‘열쇠’의 힘을 빌어서 능히 짧은 시간내에 만족되는 선율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천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의 중국>의 배경음악과 주제가의 창작에 참여했는데 이는 한부의 중국 파룬궁 수련생들이 받은 박해사실을 반영한 다큐멘터리이다.

천동으로 말하자면, 이는 처음으로 그의 심령으로 하여금 비할바없이 진감시키는 여정이었다. 정의와 사(뒷면에 계속)

(4면의 계속) 악의 대처에서, 수련자의 신앙에 대한 견인함은 그의 음악으로 하여금 더욱 기

세가 당당하고, 순정하면서도 힘이 있게 변화시켰다. 영상의 주제곡 <용기내어 믿다>를 통해

천둥은 할리우드 미디어 독립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훌륭한 주제곡이란 큰상을 받았다.



마샤오쥘 (马小钧)은 <사부님의 인도하에>를 창작하고 있다.

■ 천음정악은 하늘에서 온다

마샤오쥘 (马小钧)은 80년 후에 태어났고, 미국 버클리음악대학 유비배경음악 전공을 졸업했다. 2016년, 그는 면담시험에서 본인이 제작한 <사부님의 인도하에>라는 교향곡을 연주했다. 이는 대법제자들이 서약을 세우고, 원고시기부터 지금까지 사부님을 따라 하세(下世)하여, 사부님의 인도하에 인류의 문화를 창립하면서 대법을 흥전(洪传)하고, 중생을 구도하는 장려한 시편을 펼치는 함의를 표현했다. 입학한 후 많은 대학교수들은 이 곡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하늘에서 온 이런 곡들을 더 많이 창작하길 바란다.”

신기한 것은 마샤오쥘이 이 곡을 창작할때 곡의 전부를 완정하게 직접 귀로 들을 수 있었는데 영감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머리속에 주입됐고 그는 다만 그것을 기록했을 뿐이다. 작곡에서부터 곡을 쓰고, 악보를 쓰고, 믹스하는데 까지 이틀에 완성됐다. 이는 그가 파룬따파를 수련하였기에 지혜가 열리면서 천음정악(天音净乐)을 듣게된 것이다.

2008년 말, 20여세인 마샤오쥘은 급성 대엽성 폐렴에 걸려 고열이 지속되고 기침을 하여 당시 그의 폐부는 이미 75%가 꿈아 괴사한 상태였다. 위기속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여자친구가 그에게 “파룬따파 하오 ‘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썬싼런 하오 ‘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넘하라고 알려줬다. 마샤오쥘은 마치 절경속에서 구명초를 잡은 것마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곧 마음속으로 묵념했는데 얼마를 넘했는지 모른다.

저녁이되자 기적이 나타났다. 반성 반쯤 깨어 있을때 그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이 온몸의 매개 세포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마치 봄을 맞이할

때 만물이 깨어나는 기분이었는데 몹시 편안하고 조용했다. 그는 조용히 그 기묘한 감각을 체험하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뜨고보니 폐부는 아프지 않았고 호흡도 곤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능히 침대에서 내려올수 있었고 이어서 담(痰)을 토하기 시작했고, 시커멀고 진한 담을 얼마나 토해냈는지 모른다. 그런후 병증은 빠르게 호전돼 일주일 뒤에 바로 출원했다. 그의 병이 어찌나 빨리 호전됐는지 그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한달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을때 의사도 엑스레이 사진이 바뀐건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그의 폐부는 깨끗해졌다. 출원후, 그의 여자친구는 그에게 <전법륜(转法轮)>을 선물했다. 마샤오쥘은 말했다. “그당시 저는 귀중한 보물마냥 손에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아주빨리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은 진짜 보서(宝书)이고 안에는 현묘함이 충만되고 우주의 천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밍후이왕 신탕런**

진상 분신자살 자는 불에 타 죽었는가?

2001년의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은 중공이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사기극이라고 증실했다.



그림 1, 류춘링 (劉春玲)의 몸에 붙은 불을 끌때 누군가 단단한 물건으로 그녀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 **그림 2-3**, 류춘링은 무의식적으로 두손을 들어서 머리를 감싸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충격 받아 구불어진 흥기는 그녀의 머리에 부딪혀 빠른 속도로 튕겨났다. / **그림 4**, 외투를 입은 누군가 충격을 가하던 위치에서 있어 힘쓰던 자세를 유지 하고 있었다.

신은 사람의 마음만 본다. 진심으로 중공의 당, 단, 대조직에서 퇴출할 때 진명, 가명, 애명도 다 된다.

‘돌파 프로그램’으로 해외 퇴당에 일 tuidang @ epochtimes.com 에 등록해 ‘3 퇴’성명을 발표 할 수있다.

달은 둥글고 사람은 더 원만하다

그랜드캐니언을 향해 자살하려던 순간,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다...

25 세인 대만 여성 라오페이루 (廖佩茹)는 미국에서 박사공부를 할 때 갑자기 치료하기 어려운 류마티스 관절염 (류풍습)에 걸렸다. 온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두발은 점차적으로 걸을 수 없게 됐다. 그는 인터넷에 올라 아주 많은 자료를 보고서야 이 병은 먼저 관절을 침입하여 모든 관절이 엄중하게 변형되게 하고, 따라서 심장과 기타 내장을 공격해 몇십년을 지체하다가 최후 고통스럽게 죽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가족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미국의 그랜드캐니언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곳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결심했다.

유서를 써놓고나서 라오페이루는 마지막으로 한번 인터넷에 올라가 보기로 결정했다. 갑자기 사이트 밑부분의 “류마티스 관절염이 기적처럼 완쾌되다”라는 구절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클릭하여 보니 이외로 파룬궁을 연마해서 완쾌됐다는 것이었다. 한일보 더 깊이 검색해보고 그는 별의별 난치병도 모두 파룬궁을 수련하면 완쾌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시각 그는 한가닥 희망이 생겨 사이트에서 파룬궁서적과 관련자료



수련후 라오페이루 (廖佩茹)는 (중간) 새로 태어났다, 그의 모친 (좌)과 여동생 (우)도 잇따라 수련에 들어왔다.

들을 다운받았다.

라오페이루는 <전법륜 (转法轮)>을 한번 읽고 이 책은 사람을 선하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타종교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답안, 그리고 그의 수많은 질문까지 답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를 제일 놀라게 한 것은 연공을 시작 한지 이들이 되는날 밤 그의 온몸은 더워났고 더워서 이불마저 차 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엔 심각한 구취도 사라졌고, 잠도 잘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식욕도 생겨 죽으려던 생각마저 버렸다. 그는 자신이 희망이 있음을 알고는 대만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대만의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그를 도울수 있다

고생각했기 때문이다.

2004년 4월 13일 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대만으로 돌아왔다. 17일 아침, 그는 명후이왕 사이트에 기재된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다”라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수련을 통해 불치병이 완쾌된 진실한 사례를 보고는 한발 한발씩 움직여 스스로 인근에 있는 연공점으로 갔다.

단지 보름사이에 라오페이루는 능히 정상적인 사람처럼 큰걸음으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후 그는 철저히 완쾌됐다. 그의 모친과 그의 동생 또한 많은 친척과 친구들도 이 기적을 견증하였기에 그들도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명후이왕

견증 나는 깨어나고, 살아났다

나의 이름은 리양입니다. 미국의 한 은행에서 출근 합니다. 금년에 나는 무한 폐렴에 감염돼 고열이 지속되고 호흡곤란으로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신장기능이 쇠약해져 적혈구와 백혈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직업을 가진 누나도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난중 누나와 아내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친척에게 구원을 청했습니다. 친척은 우리 온 가족이 모두 다

함께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쯔싼런하오 (真善忍好)”이 ‘9자 진언’을 념하라고 말했습니다. 친척은 즉시에 대법 사부님께 향을 올려 나를 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병원에 왔을때 나는 이미 열이 내리고 혼미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손상돼 투석해야 했습니다. 그때 나 자신도 회복되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누나는 나에게 ‘9자 진언’을 계속 념하라고 고무하자 나도 따라서 계속 념했습니다. 3주 동안의 투석이 아무런 효과도 없다

가 갑자기 몸이 움직여지기 시작 하더니 즉시로 퇴원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로부터 나는 2주도 안 되어 완전히 회복됐고, 얼굴의 혈색도 좋아졌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무한 폐렴 증상도 완전히 살아졌습니다.

무한 폐렴으로 흡사 고문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고, 거의 죽음 직전에서 믿을 수 없는 행운과 축복으로 깨어나고 회복됐습니다. 파룬따파가 우리 온 가정에 주신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명후이왕